

여성주의상담자 교육 모델에 관한 고찰*

김민예숙†

강문순

춘해대학 상담심리과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여성주의상담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요구되는 여성주의상담자 교육 모델을 그려보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문헌연구, 교육프로그램분석, 심층면접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여성주의상담 교육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교육목표 요소에서는 여성주의상담이 지향하는 가치를 교육하고, 그 가치를 수행하기 위한 체화와 상담기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내용 요소에는 여성주의상담의 역사, 여성학, 상담심리학, 여성심리학, 자기성찰(체화)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요소에서는 교육자와 교육생의 권력의 평등을 지향하고, 교육생의 다양성과 경험을 인정하고 비성차별적 언어의 사용, 교육생의 태도 변화를 지향하며 교육자가 멘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교육자 요소에서는 역할 모델을 해야 하고, 교육자 자신을 긍정하고, 교육생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학습을 협력과정이라 믿으며 자기노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상의 문헌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상담소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주의상담 교육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성주의상담 교육목표, 내용, 과정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첫째, 교육내용에서 여성주의상담 교육이 다루어야 할 5개의 각 영역간의 균형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이 상담 과정보다는 상담 내용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여성주의상담 교육자의 태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교육자가 여성주의상담 교육자의 태도를 갖추느냐의 문제에 앞서 교육을 할 전문가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주요어 : 여성주의상담자 교육,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자

* 이 논문은 2004년도 춘해대학 학술연구구성비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 교신저자 : 김민예숙, 춘해대학 상담심리과, (689-784)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산72-10

E-mail : yeawoo@choonhae.ac.kr

우리나라에서 여성주의상담이 시작된 원년을 1983년이라 본다(김예숙, 1998). 여성주의 관점에서 매맞는 아내들을 위한 상담을 시작하고, 아내구타를 정당화시키는 가부장제의 존재를 자각하게 하는 의식화운동을 하여, 가정폭력 방지법의 제정까지 이끌어 간 한국여성 의전화가 서울에서 창립된 해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간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고, 많은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설립되어 여성주의상담을 하는 상담소가 늘어났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여성주의상담을 표방하는 상담소들이 지향해야 할 교육 모델이 어떤 것 인지를 살펴보고, 현재 여성주의상담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이다. 역사는 20년이 넘었지만 대부분의 상담소에서는 여성주의상담자 교육에 대해 깊게 연구해볼 여유 없이-자원봉사할 상담자를 교육하여 상담 현장에 투입하는 데에 주력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본 논문의 연구자들은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명실상부한 여성주의 상담자를 교육하는 모델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연구의 동기는 연구자들이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여성주의 상담소에서 상담, 교육, 슈퍼비전을 담당하면서 교육의 질적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서 나왔다.

서구에서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원년은 상담에서 성차별의 문제를 다룬 논문이 발표된 1970년이다(Broverman et al, 1970). 그 후 30년 동안 여러가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여성주의상담자 교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미국심리학회의 여성심리학회 (35분과)가 조직하고 지원하여 1993년 제 1차 여성주의 교육과 훈련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Worell & Johnson, 1997).

77명의 여성심리학자들이 모여 교육과 훈련에 관한 아홉 가지 주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Worell과 Remer는 “Harway(1979), Worell(1980), Worell과 Remer(1992)는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진 상담심리학에서의 여성주의 훈련 모델을 제안했다” (2003/2004, 457쪽)고 말하고 있어, 서구에서도 관련 연구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다. 연구자들은 본 논문에서 여성주의상담교육에 대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문헌연구, 상담교육 프로그램 분석, 그리고 심층면접이다. 첫째 방법인 문헌연구에서는 서구의 여성주의상담 전문가들의 문헌을 고찰하였다. 둘째 방법인 상담교육 프로그램 분석과 셋째 방법인 심층면접에서는 우리나라의 여성주의상담의 실체를 분석하였다. 여성주의상담자는 전문적 훈련을 받은 전문적 상담자와 여성 인권운동을 겸하는 활동가 상담자로 분류된다(Enns, 1997). 상담교육 프로그램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문적 상담자들이 여성주의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세 개의 여성단체 상담소와 서울의 한 구립회관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여성주의상담을 표방하는 상담소의 소장으로서 교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네 명의 활동가 상담자를 대상으로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서구의 전문적 상담자, 우리나라의 전문적 상담자, 우리나라의 활동가 상담자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는 교육 모델이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유용하리라고 판단하였기에 세 가지 접근으로 연구를 하였다.

문헌연구

Worell과 Remer가 제안하고 있는 상담심리학에서의 여성주의 훈련 모델은 대학원을 위한 모델이다 (2003/2004). 그들은 대학원 프로그램에는 태도와 가치, 구조, 자원, 외부활동의 네 가지 구성요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태도/가치 요소는 교수가 상담과 연구에 대해 여성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고, 구조 요소는 여성주의 심리학과 여성주의 상담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교과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 요소는 관계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등이 자원이다. 외부활동 요소는 교수가 연구와 실천에서뿐만 아니라 지역활동과 전국활동에서도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여성주의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원이 없다. 현재 여성주의상담 교육은 상담소에서만 행해지고 있으며, 본 논문도 상담소에서 행해지는 여성주의상담자 교육을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Worell과 Remer의 모델을 상담소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문헌연구를 하였다. 태도/가치 요소는 상담소 교육에서 여성주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목표 요소로 수정하였고, 구조요소는 상담소 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쳐지는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내용, 교육과정 요소로 수정하였다. 자원요소는 상담소가 자체 자원이기에 배제했다. 외부활동 요소는 상담소의 교육자가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자 요소로 수정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상담소에서 행하는 여성주의상담자 교육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

육과정, 교육자 네 가지로 설정하게 되었고, 문헌연구를 통해 그 요소들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목표

여성주의 상담자 교육의 목표는 효과적인 여성주의상담자를 키우는 것이다. 그런 상담자를 키우려면 다음의 것들을 하부목표로 하여 교육해야 한다.

여성주의 상담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리를 교육한다

어떤 상담도 가치중립적이지 않다(Lerner, 1988). 상담자가 외현적으로 표현을 하든 안하든 상담자의 가치는 상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여성주의상담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교육해야 한다. 내담자를 성차별, 장애차별, 연령차별, 인종차별, 계층차별, 이성애주의, 자민족 중심주의에 의한 피해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것이 여성주의상담의 핵심가치이다(Worell & Remer, 2003/2004). 여성주의상담의 원리들-내담자의 문제를 심리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라는 원리,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평등하게 하라는 원리, 내담자의 역량 강화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라는 원리 (Enns, 1997)-은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가치와 원리를 수행할 수 있게 체화시킨다

여성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동의해도 자기성찰을 통해 내면화된 가부장제의 가치를 살펴보고 여성주의의 가치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Worell & Remer, 2003/2004) 머리로 배우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할 때 내면화되어 있는 가부장제의 가치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체화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가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 기술을 훈련시킨다

상담과정은 순간-순간 상호연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Hill & O'Brien, 1999/2001). 상담이 효과적이라면 내담자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상담자가 그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상담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언어적, 비언어적 기술을 사용하여 중재해야 한다. 여성주의상담이 효과적이라면 상담자가 그런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모두 여성이라든가, 상담자가 여성주의의 가치를 체화했다는 조건만으로는 상담이 효과적으로 될 수 없다. 여성주의상담 과정은, 단순화시켜 볼 때 내담자의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내담자의 힘을 새롭게 보게 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탐색하는 기술, 통찰의 기술, 실행하게 돕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없이 내담자를 만나면 효과적인 여성주의상담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내용

여성주의상담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여성주의상담에 대해 모두가 사용하는 동일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명확하게 말해지는 것은 있다. 브라운은 상담자가 여성운동의 대의에 일반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또 여성 내담자를 상담하며 섭식장애나 성폭력 같은 여성문제를 상담한다고 해서 여성주의상담은

아니라고 말한다(Worell & Johnson, 1997). 여성주의상담에 대해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요소들을 모아보면 젠더와 그 외의 차별을 근거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 민감하기, 문제를 심리내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기, 내담자의 역량강화와 사회변화를 상담목표로 하기, 그리고 상담관계에서의 힘의 평등성이다(Worell & Remer, 2003/2004, Ballou, Matsumoto & Wagner, 2002, Wyche & Rice, 1997, Enns, 1997, Porter 1985, Faunce, 1985, Gilbert, 1980).

위의 요소들이 여성주의상담의 공통분모라면, 그것들이 여성주의상담자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젠더에 대해 민감하게 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을 가지기 위한 여성학, 독특한 인간관계인 상담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여러가지 상담이론과 상담기술을 배우기 위한 상담심리학,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사회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남성심리에 대한 연구를 인간심리에 대한 정통적 연구로 인정하며 무시해 온 여성심리를 배우기 위한 여성심리학, 그리고 평등한 상담관계를 갖기 위하여 자신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시간들이다. 그리고 연구자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여성주의상담의 정신과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역사이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다.

역사

한 상담이론이 탄생하게 되는 데는 사회문화적 맥락들이 있다. 여성심리학자들은 미국심리학계에서도 한 이론과 그것이 나온 시대의 문화를 연결시키는 것은 드문 일이나, 그것이

여성주의 심리학의 독특한 점임을 지적하고 있다(Brown & Ballou, 1992). 여성주의상담은 1960년대 미국의 여성운동의 주요활동이었던 의식향상집단의 맥락에서 여성들의 집단적인 노력으로 탄생하였다(Enns, 1997, Greenspan, 1993). 주로 정신분석으로 훈련받은 전문적 상담가였던 그 여성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 즉 여성들이 불행해지는 큰 이유가 심리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가부장제라는 사회적 요소 때문임을 의식향상집단에서 배웠던 것이다. 그 배움으로 그들은 여성주의상담이라는 새 분야를 개척하게 된 것이다. 이 역사를 알아야, 여성주의상담 본래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학

여성주의상담에서는 젠더와 사회를 보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가부장적 관점에서 여성내담자를 보는 상담자를 만나면 -그 상담자가 남자든 여자든- 여성내담자는 현실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상담관계에서도 차별과 억압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한 여성내담자는 남성상담자가 자녀양육을 어머니 혼자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해하지 못하자, 여성학 책을 읽으라는 말을 상담자에게 했다고 한다(김민예숙, 2003). 미국의 내담자들은 Miriam Greenspan의 「우리 속에 숨어있는 힘」이 1983년 출판되자, 자신의 상담자에게 이 책을 주며 도전했다고 한다(Greenspan, 1993). 사회문화에서 젠더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여성학적 지식이 있어야, 사회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심리학

여성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교육도 길이고, 운동도 길이다. 그런데 여성주의상담은 상담을 길로 선택했기에, 여성을 다른 관계가 아닌 상담관계로 만나야 하고, 그러려면 특수한 관계인 상담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담기법을 배워야 한다. 상담기법이 부족할 때, 상담은 상담이 피하고자 하는 교육이나 교훈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주의상담자 교육이 여성주의 가치를 교육하는데 치중하고 그 전달방법인 상담기법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면, 여성주의상담에서도 상담이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기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실습이 여성주의상담자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성주의 상담자의 입장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로만 상담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상담이론을 결합시켜 상담하는 것이 포괄적인 상담이 된다는 입장이다(Worell & Remer, 2003/2004). 많은 여성주의 상담자들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상담이론이 제공하는 인성에 대한 이해, 상담관계의 특성에 대한 이해, 문제의 원인 파악, 상담목표, 상담기법을 여성주의상담의 원리와 통합시킬 때 내담자를 더 잘 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존의 어떤 상담이론과도 통합시킬 수 있는데, 조건은 그 이론을 여성주의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기존의 상담이론에 내재해 있을 수 있는 가부장적 요소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Worell과 Remer는 자신들이 통합하기로 선택한 상담이론인 인지행동치료와 사이코 드라마를 여성주의적으로 탈바꿈시키는 법을

보여주고 있다(2003/2004).

여성심리학

해방심리학자 마틴 바로는 불평등한 권력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지식을 생산해야 실제세계의 필요에 응하는 심리학이 된다고 주장한다(Ballou, Matsumoto & Wagner, 2002). 여성의 심리에 대한 지식은 지금까지 별로 연구되지 않았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남성의 심리가 인간의 심리의 대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여성심리학에는 크게 여성만의 고유한 심리가 있다는 입장(Gilligan, 1982/1994)과, 여성에게 고유하게 주어졌던 맥락에서 여성이 고유한 심리적 경험을 했다는 입장(조혜자, 2002)이 있는데, 이런 이론들을 알고 논의해 가야 여성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성찰(체화)

상담자가 내담자와 평등한 관계를 가지려면 자신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성찰해 보아야 한다 (Worell & Johnson, 1997). 평등을 이상으로 추구한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그러므로 교육생은 자신이 실제로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한 가부장적 가치관을 얼마나 극복했는지 그리고 여성주의 가치관을 얼마나 체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체화의 여부는 일상의 맥락에서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을 정직하게 관찰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여성주의는 평등성을 강조하는 철학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자체도 여성주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즉 여성주의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어때야 하는가도 교육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내용과 형식이 맞지 않으면 이중메시지를 주는 셈이 된다. 예를 들어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성주의상담의 원리라는 내용을 매우 권위적인 태도로 주입식으로 교육한다면, 교육생에게 지적으로는 전달될 수가 있을지라도 교육생이 그것을 전인적으로 체화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성주의상담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선행연구의 맥락은 주로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인데, 대학보다는 단체나 기관에서 여성주의상담 교육을 하는 우리나라의 맥락에 맞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자와 교육생의 권력의 평등 지향

교육에서 평등을 지향한다 해도 전문성을 가진 교육자의 역할 권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자는 그 권력으로 학습과정에서 교육생을 역량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평등을 위한 노력 중 하나는 좌석배치인데, 교육생이 모두 교육자를 향해 앉게 하기보다는 둥글게 앉게 할 때 공간에 대한 권력이 나누어질 수 있다. 강의방식도 일방적 강의보다는 조별 토론과 발표 등을 포함시킬 때, 강의 진행에 대한 권력이 나누어질 수 있다 (Worell & Johnson, 1997, Founce, 1985). 여성주의상담은 권력을 재정의하며 여성들이 새 힘을 배우고 쓰도록 돕는 것이다 (Smith & Siegel, 1985). 따라서 상담자가 되는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교육장면에서 새 힘을 배우고 쓰는 경험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산교육이 될 수 있다.

교육생의 다양성 인정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질 수 있다. 교육자가 그 차이들을 드러나게 하고 수용해줄 때 교육생들이 역량강화될 수 있다. 가능한 소규모의 강의를 하며, 서로 소개하고 서로의 차이를 배우고 수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산교육일 수 있는 것이다(Worell & Johnson, 1997).

교육생의 경험 정당화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성주의상담 교육이라 하여도,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보지 못하고 여성주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교육생이 있을 수도 있다. 모든 경험은 정당한 것이므로, 교육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지지해줄 때 교육생들이 역량강화될 수 있다. 단 반여성주의적인 생각은 직면하여 다루어야 한다. 그러려면 질문이나 발표 등을 통해 교육생의 경험과 의견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Worell & Johnson, 1997, Founce, 1985).

적절한 언어의 사용

언어가 함축하는 권력에 민감해져야 한다. 교육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전문용어를 쓰지 않고, 여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남성중심언어를 쓰지 않아야 한다(Worell & Johnson, 1997, Founce, 1985). 예를 들어 가족에 대해 말할 때 “아내가” 그리고 “남편께서” 라고 한다면, 또한 “친정” 그리고 “시댁”이라고 한다면 남성을 우월하게 대하는 남성중심언어를 쓰는 것이다.

태도와 가치의 변화를 교육의 목적으로

여성주의는 평등의 가치를 지향한다. 따라서 태도와 가치의 변화가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교육생의 여성주의 정체성이 발달되어야, 상담에서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Worell & Johnson, 1997, Worell & Remer, 2003/2004). 따라서 여성주의 정체성 검사를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여 스스로 비교하게 하든지, 교육기간 중에 일기를 쓰게 하여 변화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5분 발언’ 같은 시간을 마련하여 모든 교육생이 자기노출을 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육자의 멘토 역할

교육자는 여성주의상담자의 모델이 되어 멘토 역할을 해야한다. 새로운 역할에 대한 교육이기에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Worell & Johnson, 1997, Founce, 1985). 그래서 어떻게 교육하는가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생이 상담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내담자의 이야기와 동일시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면, 교육생을 지지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동일한 경험이 있다면 노출하여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멘토링의 부분이 될 것이다.

교육자

위에서 언급한 목표를 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여성주의적 과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성주의 교육자는 자신이 여성주의를 체화하여 교육에 여성주의를 반영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의식 향상을 시키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그 교육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역할 모델을 한다.

교육생들은 강의에서 배우는 만큼 역할 모델을 보면서 배운다(Founce, 1985). 그러므로 교육자는 여성주의자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자신을 긍정한다 (Worell & Johnson, 1997).

교육자는 가부장제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문명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선에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생을 역량강화하고, 교육생의 의식을 향상시킨다(Worell & Johnson, 1997).

강의 평가를 사후에만 하지 말고, 교육자는 가능하다면 강의 중간에 강의에 대한 요구나 피드백을 받아, 교육생이 자신의 힘이 강의에 반영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역량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질문, 토론, 발표 등을 통해 교육생이 자신을 노출하고 변화하게 하여 역량강화를 촉진해야 한다.

학습은 협력과정이라고 믿는다.

교육생에게서도 배운다는 태도로 교육을 해야 한다(Worell & Remer, 2003/2004). 교육자는 교육에서도 가능한 한 평등을 이루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자기노출을 한다.

교육생이 관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교육자는 자신이 여성주의 관점을 형성한 삶의 사건을 밝힌다(Worell & Remer, 2003/2004). 교육생은 교육자가 겪은 과정을 배움을 통해 자신의 성장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주의상담 교육의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교육목표 요소에서는 여성주의상담이 지향하는 가치를 교육하고, 그 가치를 수행하기 위한 체화와 상담기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내용 요소에는 여성주의상담의 역사, 여성학, 상담심리학, 여성심리학, 자기성찰(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요소에서는 교육자와 교육생의 권력의 평등을 지향하고, 교육생의 다양성과 경험을 인정하고 비성차별적 언어의 사용, 교육생의 태도 변화를 지향하며 교육자가 멘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교육자 요소에서는 역할 모델을 해야 하고, 교육자 자신을 긍정하고, 교육생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학습을 협력과정이라 믿으며 자기노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의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여성주의상담의 실천을 표방하고 이를 교육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 기관의 최근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1983년 개소한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상담을 처음으로 실시한 기관이며 1991년 개소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로 최초로 설립된 기관이다. 1995년 개소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 가족 문제를 상담하고 다루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역사가 쌓이면서 각 기관은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전문가

를 회원으로 영입하거나 회원이 대학원에 진학 하여, 상담심리학석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 서초구 여성회관은 구립 여성회관으로서 청소년, 여성 전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지역 여성회관으로 여성주의상담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드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기관 또한 상담심리학 전문가(박사)의 지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의 분석은 문헌 연구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제목과 강의안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하였다. 연구자들이 네 기관의 교육에 모두 참여하지 못하고 문서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중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자 요소는 다룰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분석은 문헌연구에도 도출된 결과 중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내용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전체를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성학 영역의 분량이 다른 영역의 분량보다 월등히 많다. 여성주의상담은 대개 2 강좌 정도이며 자기성찰(체화)에 대한 강좌는 거의 없다. 이를 다시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

여성주의상담의 역사와 원리에서는 여성주의상담의 원리와 기법 강의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상담 이론에 여성주의적 시각을 덧붙인 강좌가 하나 정도 포함되어 있다.

여성학

여성학 영역에는 다른 어느 영역보다 많은 강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다시 여성의 삶/여성의 시각에 대한 강좌와 특정이슈에 대한

강좌로 나누어보면 서울 서초구 여성회관<표 4>을 제외한 다른 세 곳의 상담소들(<표 1>, <표 2>, <표 3>)의 교육에서는 특정이슈에 대한 강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특기할만한 한 것은 <표 2>의 경우인데 성폭력을 여성(피해자)의 눈으로 보게 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주의 상담을 위해서는 각 이슈의 실태와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문제 이해의 측면에서 그 이슈를 여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라 여겨진다.

상담심리학

상담심리학 영역에서는 <표 1>, <표 2>, <표 3> 세 곳에서는 각 이슈에 대한 상담과 각 상담 이론 중 특정이론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상담소 혹은 교육기관의 관심에 따라 특정한 상담이론과 기법을 강의하고 있다. <표 4>의 경우는 네 곳 중 상담심리학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루고 있는 영역도 넓다.

여성심리학

여성심리학에 대한 관심은 <표 1>의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 및 아동의 문제’, ‘성폭력 피해자 심리 및 치료’와 <표 3>의 ‘여성심리’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여성학 영역에서 여성의 문제를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사회에서 여성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여성 심리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내담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서울여성의전화 상담원교육 프로그램

	여성주의상담의 역사와 원리	여성학		상담심리학	여성심리학	자기성찰(체화)
		여성의 삶/ 여성의 시각	특정이슈			
서울여성의전화 ~ 2004 ~ 총 30강좌 ~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와 기법 여성주의 가족치료 (2)	인간, 여성, 인권 (1) 인간, 여성, 인권 (2) 한국 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여성의 삶과 여성 정책 우리사회의 성과 성문화 여성과 노동현실 여성의 진화와 여성운동 (7)	가정폭력 실태와 대책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관련법 성폭력 실태와 대책 성폭력 사건 처리 및 관련법 여성폭력 수사 과정 및 절차 성매매 실태 및 대책 성매매 피해자 법적 지원 및 대책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가족들 위한 통합 서비스 여성폭력 영화 VTR 상영 및 토론 (9)	가해자 상담 및 치료 상담의 기초 원리와 기법 인간관계와 자기 표현 훈련(1) 인간관계와 자기 표현 훈련(2) 외도 및 부부 갈등 상담 상담 유형별 특성 및 사례 연구(1); 가정 폭력 가정폭력 상담 실습(상담 및 지원과정) 상담 유형별 특성 및 사례 연구(2); 성폭력 상담실습 (상담 및 지원과정) (9)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 및 아동의 문제 성폭력 피해자 심리 및 치료 (2)	상담원의 자세와 상담실무 (1)

* () 안의 숫자는 강좌수이다.

* 출처; 자료집 「제34기 여성상담 전문교육」, 2004, 서울여성의전화

표 2.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상담원교육 프로그램

	여성주의상담의 역사와 원리	여성학		상담심리학	여성심리학	자기성찰(체화)
		여성의 삶/ 여성의 시각	특정이슈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 2004 ~ 총 26 강좌 ~	여성주의상담 피해자의 눈으로 성폭력 바라보기 (2) - 상담사례 분석 (2)	여성과 인권 우리사회의 성의식·성문화 여성의 눈으로 세상 보기 - 성별, 섹슈얼리티 인권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해 반성폭력 담론의 역사와 발전과정 피해자 눈으로 성폭력 바라보기(1) (6)	유형별 성폭력1 -친족, 아동 유형별 성폭력2 -데이트 유형별 성폭력3 -성매매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이해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이해 성폭력 관련 비디오 시청 및 토론 성폭력 피해의 산부인과적 대응방법 성폭력 피해의 수사과정 성폭력 피해의 정신과적 대응 방법 법정 견학 유형별 성폭력4 -사이버스토킹 (11)	MBTI MBTI 상담의 이론과 실제1 상담의 이론과 실제2 전화상담의 이론과 실제 성폭력 상담실습 -상담 및 지원 과정 (6)		자원 상담의 자세와 역할 (1)

* () 안의 숫자는 강좌수이다.

* 출처; 자료집 「2004년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2004,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 상담소

표 3.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원교육 프로그램

	여성주의상담의 역사와 원리	여성학		상담심리학	여성심리학	자기성찰(체화)
		여성의 삶/ 여성의 시각	특정이슈			
한 국 성 폭 력 상 담 소 ~ 2 0 0 3 ~ 총 32 강 좌 ~	여성주의상담 계슈탈트와 여성주의 (2)	토론; 여성, 어떻게 살아왔나 여성문제와 나 성별, 성, 몸 - 통계와 소비의 대상으로서의 몸 여성관련 법률의 해석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섹슈얼리티 이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운영 사례 (6)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성폭력 피해의 의학적 대응 방안-부인과적 측면에서 성폭력 피해의 정신과적 대응 방안 어린이, 친족 성폭력의 특성 및 열림터 운영 직장내 성폭력의 특성 학내, 데이트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 사이버 성폭력 성폭력 사건의 법적 절차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과 수사절차 청소년 성폭력 범의 왜곡된 여성관과 성폭력과의 관계 가해자를 통해 본 성폭력 (12)	성폭력 상담의 사회복지적 지원체계-위기 상담으로서의 성폭력 상담 상담의 기본원리 전화상담의 이론과 실제 성폭력 상담의 실제 성폭력 피해자 치유상담 I- 역기능가정의 성인 아이 성폭력 피해자 치유상담II 장애인 성폭력 상담 현황과 피해 실태 (사례중심) (8)	여성심리 (1)	성폭력 상담자의 성인식 상담자가 알아야 할 성지식 상담원의 자세와 역할 (3)

* () 안의 숫자는 강좌수이다.

* 출처; 자료집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자료집」, 2003, 한국성폭력상담소

표 4. 서울 서초구여성회관 여성주의상담 교육 프로그램

	여성주의상담의 역사와 원리	여성학		상담심리학	여성심리학	자기성찰(체화)
		여성의 삶/ 여성의 시각	특정이슈			
서울 서초구 여성회관 ~ 2004 ~ ~ 총 32 강좌 ~	여성주의상담 이론 여성주의상담 사례 (2)	여성주의란 무엇인가 성차와 여성의 사회화 성지식 바로 알기 여성과 언론 여성과 문학 여성과 리더쉽 여성과 미디어 여성과 법률 여성과 국가 여성과 가족 여성과 사회참여 (11)	가정폭력 (1)	자기분석 모형 (현실요법 이론과 실제) 여성과 자기표현 상담이론 이상심리학의 기초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MMPI, SCT) 검사해석 (HTP, KFD) 검사해석(MBTI) 의사소통 기법 외도의 심리 연극치료 1 연극치료 2 심리극 1 심리극 2 집단상담의 실제 (1박2일) 상담기법(공감) 상담기법(경청) 상담실제 (역할연습) 상담실제 (역할연습) (18)		

* () 안의 숫자는 강좌수이다.

*출처; 구립 서초구 여성회관 교육 안내문, 2004, [http:// www.women.co.kr](http://www.women.co.kr)

자기성찰(체화)

마지막으로 자기성찰(체화)에 대한 관심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표 1>, <표 2>, <표 3>세 곳에서 모두 '상담원의 자세와 상담실무' 강의를 통해 상담원의 자세를 교육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표 3>의 경우는 이에 덧붙여서 상담자의 성인식/ 성지식을 검토하는 강좌가 포함되어 있어 교육생이 학습한 것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연구자들은 위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현재의 교육프로그램의 실제 현황과 기획의도를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상담소에서 교육을 마친 뒤 실시하는 평가설문지*를 구하여 살펴보았다. 평가지에는 강의 내용과 진행방식 그리고 수업분위기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에 대한 질문에서도 교육에 첨가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구현하지 못했던 여성주의적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있다. 평가 설문지 자체가 여성주의상담 교육과정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현재의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들은 상담 혹은 심리 이론에 이슈에 대한 이해 혹은 여성주의적 관점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교육프로그램들이 나타내는 한계를 살펴보면 첫째, 여성주의상담을 표방하면서도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강좌가 극히 적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성주의상담의 원리와 그 실제 적용이 한 두 개의 강좌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성주의상담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를 실제 상담에서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강좌와 실습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어떤 상담이어야 하는가 즉, 상담의 내용과 문제인식에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가 즉, 상담의 과정과 태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보여주며, 그 상담 내용 중에서도 여성의 삶의 맥락과 특정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양적으로 보더라도 <표 1>을 제외하고는 상담 내용에 대한 강좌의 분량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상담 내용에 대한 강좌 분량만큼의 분량이 상담의 과정과 태도에 할당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상담소는 여성의 삶과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여성운동의 목적을 상담이라는 방법으로 구현해 나가는 곳이다. 따라서 상담소는 여성운동의 목표와 함께 상담을 그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 교육에서는 주제 혹은 이슈별 교육과 실습에 우선해서 기본적 상담관계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은 이러한 기본 교육보다는 상담소 혹은 단체에 따라 개별 상담이론에 대한 교육과 이슈에 대한 상담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여성주의상담자 교육과정에 부합되는가를 실제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육이 강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앞으로의 교육에서는 이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여성주의상담 교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본 연구는 현장에서 여성주의상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주의상담 교육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들

*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교육평가설문지

표 5. 연구참여자

사례	나이	경 력	상담소 활동기간
1	44	전 상담소장	97년~ 현재 (성폭력상담소장 4년)
2	36	현 상담소장	94년~현재(성폭력상담소장 2002~현재)
3	44	전 상담소장(현 여성단체 회장)	94년~현재 (성폭력상담소장 3년) (회장 3년)
4	40	전 상담소장	96년 ~ 현재(가정폭력상담소장 4년)

은 Enns(1997)가 분류한 전문가 상담자와 활동가 상담자 중 활동가 상담자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Enns는 여성주의상담 실천영역의 다양성을 논의하면서 활동가 상담자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선의 상담소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상담자로서 활동하는 활동가 상담자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주 특별한 용기」(1992/2000)를 쓴 Ellen Bass와 Laura Davis는 상담심리 전문가는 아니었으나 활동가로서 치열한 고민과 연구 끝에 성폭력 생존자 치유에 관한 중요한 책을 쓰게 되었듯이 활동가 상담자들의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일정 부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인 연구참여자들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주의상담 실천현장에서 5년에서 10년 가까이 여성주의상담을 실천하고 교육하면서 여성주의 상담에 대해 고민을 해 온 사람들이다. 이에 활동가 상담자로서 일정 부분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되어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으로 한 연구 참여자를 대략적으로 소개해 보면 <표 5>와 같다.

연구자들이 상담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알아보려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하려고 준비한 질문은 아래의 5개이다

1. 왜 여성주의상담을 하는가 (여성주의상담이 왜 필요한가)
2. 여성주의상담을 하는 상담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상담자 교육을 기획하는가
3. 여성주의상담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보완 방법은 무엇인가
4. 여성주의상담의 효과는 무엇인가
5. 여성주의상담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중에서 1번과, 4번은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인식과 여성주의상담자 교육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2번과 3번은 현재 여성주의상담자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보완책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마지막으로 5번은 여성주의상담자 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연구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 문항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을 문항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왜 여성주의상담을 하는가(여성주의상담이 왜 필요한가)

여성주의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상담활동을 하면서 여성 내담자들을 제대로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왔

던 것들이 얘기 되었는데, 이는 크게 다음의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여성문제의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주의상담의 필요성을 첫째로 여성내담자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에서 찾는다. 이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여성주의상담의 원리와 일치한다. 이와 함께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구별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게 도울 수 있다고 한다.

여성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특히 고통이라든지 상처라든지 그런 것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걸로도 하여튼 풀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는 지점 그럴 때 여성주의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담의 과정

여성주의상담의 필요성은 여성주의상담의 상담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주의상담의 과정을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 설정, 개인을 주체화시키는 과정, 내담자를 의식화시키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과정이 여성 내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상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제가 여성주의상담을 접하면서는 여성주의상담의 시각에서 당위성뿐만이 아니라 과정이 있잖아요 여성주의상담 과정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 설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치적으로 내담자를 의식화

시키는 과정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개인을 주체화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사회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각자체에 이런 과정이 없이는 사실은 해결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여성심리에 대한 이해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주의상담이 여성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향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로 귀인하는 여성심리에도 기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 심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폭력 피해자의 자책의 복잡한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여성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사회에서 살아 오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가져야 했던 여성 심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여성 심리도 성폭력 피해가 있든 없든 어떤 것이 잘못됐을 때 자책을 하는 심리가 여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그것이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본인은 자꾸 그렇게 만든다는 것 근까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가 아니라 아무 메시지가 없으면 저절로 간다는 거죠

역량강화(empowerment)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주의상담의 목표는 적응을 넘어서는 변화에 있으며 그 변화는 내담

자의 역량강화를 포함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 안에 있는 가부장성을 털어 내 놓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를 찾고 자신의 내부에 있는 힘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것이 여성주의상담의 중요 목표이며 여성주의상담이 필요한 이유라고 한다. 또 하나 여성주의상담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그 동안의 여성의 삶이 사회의 메시지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자신은 사회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자기인식 속에 있었다는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고 따라서 여성주의상담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집단 상담이든 개별상담이든 간에 서로가 직시하면서 자기 안의 새로운 힘을 발견해 내는 것 그리고 그 힘을 창조해 내는 그런 것이 여성주의상담이나 그걸 통해서 가능하고 또 여성주의 상담이 목표로 하는 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성주의상담의 원칙을 자꾸 다듬어 나가야 겠지만 우리 여성들이 힘을 갖는 것 진정한 힘을 갖는 것 내면에.

여성주의상담을 하는 상담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상담자 교육을 기획하는가

이 문항과 3) 문항은 1) 문항에서 이야기된 여성주의상담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가,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이 문항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털어 놓는다.

여성주의상담의 필요성과 여성주의상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 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고민과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 모든 프로그램에 여성주의적 시각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서 여성주의상담에 관한 부분을 다음의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여성으로서의 생각, 경험 풀어 놓기

교육프로그램은 먼저 여성으로서의 생각과 경험을 풀어 놓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한다.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경험과 생각을 나눔으로써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여성문제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이 강좌는 교육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로의 경험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처음에 할 때는 인제 자기 얘기를 풀어 놓는 시간을 한 시간 정도 하고 자기가 사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정도는 이 정도구나 스스로 느끼게끔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

여성의 현실에 대한 강의

여성들이 현재의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사회 문화적 맥락 내에서의 여성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공부한다.

대체적, 저희가 할 때는 우리 사회 현실 안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거의 여는 강의에서 그것을 넣었던 것 같아요 현실을 바로 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차별은 어느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지 알게 해주고 그런 거를 우리들이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는 강의에서 주로 저희가 넣었던 강의는 우리 사회의 여성의 현실 이름은 여러 가지로 바꾸기는 하지만 내용은 거의 늘

여성의 눈으로 사회를 보는 시각을 길러 주는 것

여성의 문제,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 내의 위치를 공부한 교육생들은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된다. 가부장제적 시각에서 보아왔던 여성의 삶과 문제를 여성 자신의 시각으로 보는 경험을 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길러주는 강의 하나를 배치했었고

여성주의상담 이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성주의상담의 이론과 기법을 배우는 것이다. 물론 한 강좌로 여성주의상담의 원리와 그 적용 방법을 익히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그 원리와 전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성주의상담에 관한 것 하나

넣고 그건 보통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 하거나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인제 상담원 교육에서는 사실 체계적으로 못했어요 여성주의상담을 그 왜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이나 성폭력 상담원 교육에서 여성주의상담이 한 파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고

이를 보면 강좌의 수와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몇 개의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강좌를 통해서 여성주의상담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 내용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성주의상담의 역사와 원리*에서 여성주의상담의 원리(여성주의상담 이론)가 그리고 *여성학*(여성으로서의 생각, 경험 풀어 놓기, 여성의 현실, 여성의 눈으로 사회를 보는 시각을 길러 주기)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면접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물론 *상담심리학*도 어느 정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성심리학*이나 *자기성찰(체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성주의상담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보완 방법은 무엇인가

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전문가의 부족과 인력과 시간의 부족에서 찾고 있다.

전문가의 부족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주의상담, 상담심리학, 여성심리학 등의 영역에서 그것을 강의해 줄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데에 입을 모은다. 특히

연구자들이 속한 지역 단체의 경우 각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전문가를 모실려고 해도 전문가는 너무 멀리 계시고 많지도 않고 저희는 그런 게 많이 아쉬움도 큰 거 같구요 지역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상담소 자체 내에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기획, 교육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

현재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는 재정이나 인적 자원의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원 내에서 상담소에 요구되는 업무들, 즉 상담, 교육, 행사들을 치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가기 어렵다고 한다.

상담소 자체 내에서 여성주의상담에 대해서 꾸준히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이든 재교육이든 하고 요거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뛰기 바쁜 거예요 현장 활동 자체가 너무나 그래서 보통 교육을 개별로 다른 시간에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현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에는 여기서 제기된 원인들이 큰 비중으로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 내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여성주의상담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상담소 내에 굳게 존재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물어 볼 필요도 있다고 여겨진다. 각 상담소에서 여성주의상담을 제대로 실천하고자 한다면 상담소 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주의상담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전문가가 되려는 노력과 투자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현재의 교육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각 상담소 내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둘째 여성주의상담 이론의 체계화와 다른 이론과의 통합, 셋째 여성주의상담의 원리와 과정을 교육과정에 더 많이 넣기, 넷째 지속적인 수퍼비전과 후속교육이 제시되었다. 이 4가지는 연구참여자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제시한 것인데 이 중 중요하게 제기된 것이 교육자(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물론 상담소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상담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앞서서도 얘기 되었던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상담소에서 이룩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를 양성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나 학과가 개설되는 것이다.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는 연구와 실천이 상호작용하면서, 여성주의상담 전문가의 양성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서구에서 여성주의상담자를 위한 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주의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나 학과의 개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여성주의상담의 효과는 무엇인가

여성주의상담의 효과 또한 여성주의상담의

실천을 검증하고 여성주의상담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자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주의상담의 효과를 내담자와 상담 활동가의 변화에서 찾는다.

내담자의 반응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주의상담의 효과를 내담자가 새로운 시각을 획득하고 힘을 얻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어떤 상황이나 관계를 현재까지 익숙했던 시각(특히 가부장제적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문제를 새롭게 보고 인식해 가는 모습, 상담을 통해 자신의 힘을 발견하고 그 힘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서 그 효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내담자의 말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가장 잘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그런 말을 내가 해도 되냐고 물어 본다든지 아니면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렇게 전혀 의외라는 그렇게 할 때 또 자꾸 힘을 빼던 내담자가 그 일을 종결시킬 때까지 힘을 유지시켜서 사건 하나 종결이 혼을 한다든지 성폭력 사건 종결이 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상담원들의 변화

두 번째로는 상담원들이 교육과 상담활동을 통해서 변화해 나가는 모습에서 여성주의상담의 효과를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의 문제를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보고, 또한 자신의 문제를 사회, 가족의 문제와 구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가족, 친구 등과 주체적인 관계를 하는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에서 여성주의상담의 효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담원들의 변화, 상담원들의 예전하고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는, 옛날 같으면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반응을 할텐데 지금은 문제가 명확히 보인다는지 아니면 그 문젠 남편 문젠데 내 문제가 아닌데 내가 끌고 왔네 뭐 이렇게 할 때 그걸 제일 느끼죠

이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그 변화를 경험하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성주의상담의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불완전한 느낌을 준다. 또한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큰 변동 없이 점진적이고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활동가의 경험만으로 여성주의상담의 효과를 얘기하기는 어렵다. 상담활동가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성주의상담의 체계적인 교육과 그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양적인 효과 측정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좀 더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효과 측정 방법과 도구가 요구된다.

여성주의상담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성주의상담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여성주의상담 활동가와 연구자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제기된 이 문항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은 첫째 인력 양성(전문가 배출), 둘째 여성주의상담의 커리

굴림과 교안에 대한 연구 또는 여성주의상담자 교육 교재 만들기, 셋째 정기적인 워크숍, 넷째 상담 사례, 수퍼비전 사례 연구, 또는 상담과정에 대한 매뉴얼 만들기, 다섯째 연구자와 활동가의 상호작용 -활동가의 의식적 노력도 필요, 여섯째 여성주의 집단 상담에 대한 연구의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까 수퍼비전을 어떻게 하고 상담자가 찾아 왔을 때 초기 인제 예를 들어 초기부터 종료까지 어떤 과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잖아요

상담활동가들도 보다 의식적인 그룹들이 지역에서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 세세하게 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초기에서 종결까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책이 나왔으면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연구자와 활동가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에 대한 활동가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점이다. 여성주의 상담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를 상담활동가들인 연구참여자들이 지적한 것은 이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한층 높이는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도 위에서 제시된 활동가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연구자와 활동가의 상호작용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나아가갈 때 좀 더 효과적인 여성주의상담 교육과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면접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서 여성주의상담 교육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연구자들은 본 연구를 위한 현장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여성주의상담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앞에서 논의한 문헌연구의 결과와 프로그램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중 심층면접에서 특히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교육자(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성주의상담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여성주의상담 교육에 앞서 여성주의 상담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구의 경우와 같이 대학원 학과 개설 등의 교육자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런데 면접의 정리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서 특기할 만한 언급이 나왔다. 그것은 면접과정을 통해 참여자(상담활동가) 개개인의 성찰, 여성주의상담자로서 여성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주의 연구 혹은 연구과정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결론 및 논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면서도, 현재 각 상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서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주의상담자 교육의 모델을 그려보고 여성주의상담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

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연구자들은 앞선 연구자들의 문헌을 통해 여성주의상담 교육 모델이 포함해야 할 교육목표, 내용, 과정과 교육자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 프로그램 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해 현장 상황과 현장에서 바라는 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문헌연구 결과, 교육목표 요소에서는 여성주의상담이 지향하는 가치를 교육하고, 그 가치를 수행하기 위한 체화와 상담기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내용 요소에는 여성주의상담의 역사, 여성학, 상담심리학, 여성심리학, 자기성찰(체화)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요소에서는 교육자와 교육생의 권력의 평등을 지향하고, 교육생의 다양성과 경험을 인정하고 비성차별적 언어의 사용, 교육생의 태도 변화를 지향하며 교육자가 멘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교육자 요소에서는 역할 모델을 해야 하고, 교육자 자신을 긍정하고, 교육생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학습을 협력과정이라 믿으며 자기노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상의 문헌연구 결과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현재 여성주의상담을 실시하는 주요 상담소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상담활동가들과의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상담소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주의상담 교육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성주의상담 교육목표, 내용, 과정을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는 심층면접을 통해 상담활동가 자신들이 밝힌 것이기도 하다. 우선 교육 내용에서 여성주의상담 교육이 다루어야 할 5개의 각 영역간의 균형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주의상담의 역사와 원리, 여성학, 상담심리학, 여성심리학, 자기성찰(체화)의 5개

영역 중에서 여성학 영역의 특정 이슈 부분에 강의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교육이 상담 과정보다는 상담 내용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이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 과정과 방법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여성주의상담 교육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주의상담 교육자의 태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교육자가 여성주의 상담 교육자의 태도를 갖추느냐의 문제에 앞서 교육을 할 전문가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는 특히 심층면접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현행 여성주의상담 프로그램에서는 문헌연구에 비추어 다음의 것이 부족하므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교육목표, 즉 왜 여성주의상담자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목표가 분명할 때 교육내용과 과정을 전체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내용의 다섯 영역이 균형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여성학을 제외한 여성주의상담, 상담심리학, 여성심리학, 자기성찰(체화) 부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에서 여성주의상담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담에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여성주의 과정이 구현되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여성주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여성주의상담 지식을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토론 등의 참여)과 여성주의상담을 실습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것이 중요성이 분

량이나 집중성을 통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여성주의상담 교육자를 양성하여야 한다. 각 상담소에서도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과 투자를 할 필요가 있으며, 더 체계적인 여성주의상담 교육자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나 학과의 개설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주의상담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여성주의상담 교육 내용의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연구와 함께 기존의 상담 이론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검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여섯째, 여성주의상담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여성주의상담이 실제적으로 여성 내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상담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를 통하여 여성주의상담 교육의 구성요소를 찾고, 목표, 내용, 과정 등 그것의 관련사항을 선명히 하여 하나의 여성주의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상담 현장의 여성주의상담 교육과 실천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분들을 모두 충족시키려면 연구와 실천 양 측면에서 많은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주의상담 교육 모델이 더욱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상담 접근과 타 전통상담심리학적 접근의 비교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다 다루지 못한 이 작업들은 앞으로 후속의 연구에서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예숙 (1998). 여성주의 상담에 관한 소고. 춘해대학 논문집. 제 10집. 울산: 춘해대학 출판부.
- 김민예숙 (2003). 내담자와 상담자가 말하는 여성주의상담. 알, 제 6호. 청주: 충북여성 시민문화연구소.
- 김민예숙 (2004). 생존자 집단상담 축어록. 미 발표.
- 서울 서초구 여성회관(2004). 구립 서초구 여성회관 교육 안내문. <http://www.women.co.kr>
- 서울 여성의 전화(2004). 제34기 여성상담 전문 교육 자료집.
- 조혜자 (2002). 여성, 존재인가 과정인가: 여성심리 이론과 실제. 서울: 철학과 현실사.
- 한국성폭력상담소(2004).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정상담소(2004). 2004년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정상담소.
- Ballou, M., Matsumoto, A., & Wagner, M. (2002). "Toward a feminist theory of human nature theory building in response to real-world dynamics", In Mary Ballou & Laura S. Brown (Eds.), *Rethinking mental health & disorder*.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roverman, I. K., Broverman, D., Clarkson, F. E., Rosenkrantz, P. S., & Vogel, S. R. (1970). Sex-role stereotypes and clinical judgments of mental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4, 1-7.
- Brown, L. S., & Ballou, M. (Eds.) (1992).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Feminist reappraisal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Enns, C. Z. (1997). *Feminist theories and feminist psychotherapies: Origins, themes, and variations*. New York: the harrington Park Press.
- Faunce, P. S. (1985). "Teaching feminist therapies: Intergrating feminist therapy, pedagogy, and scholarship", In Lynne Bravo Rosewater & Lenore E. A. Walker (Eds.), *Handbook of feminist therapy; women's issues in psychotherap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Gilligan, C. (1994).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허란주 옮김. 서울: 철학과 현실사 (원전은 1982년에 출판).
- Gilbert, L. A. (1980). "Feminist therapy", In Annette M. Broadsky and Rachel Hare-Mustin (Eds.), *Women and psychotherapy: an assessment of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reenspan, M. (1993). *A new approach to women & therapy*. 2nd Edition. Blue ridge Summit: TAB Books.
- Harway, M. (1979). "Training counselors," *Counseling Psychologist*, 8.
- Hill, C., & O' Brien, K. (2001). 상담의 기술. 주은선 옮김.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9년에 출판).
- Lerner, H. (1988). *Women in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Porter, N. (1985). "New perspectives on therapy supervision", In Lynne Bravo Rosewater & Lenore E. A. Walker (Eds.), *Handbook of feminist therapy; women's issues in psychotherap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Smith, A. J., & Siegel, R. F. (1985). "Feminist therapy: Redefining power for the powerless", In Lynne Bravo Rosewater & Lenore E. A. Walker (Eds.), *Handbook of feminist therapy; women's issues in psychotherap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Worell, J. (1980). "New directions in counseling wome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8.
- Worell, J., & Remer, P. (1992). *Feminist perspectives in therapy: An empowerment model for women*. New York: Kohn wiley & Sons.
- Worell, J., & John, N. G. (1997). "Introduction: Creating the future; Process and promise in feminist practice", In Judith Worell & Norine G. Johnson (Eds.), *Shaping the future of feminist psychology: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Washington DC: APA.
- Worell, J., & Remer, P. (2004).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여성의 힘을 키워주는 상담 여행. 김민예숙, 강김문순 옮김. 서울: 한울 (원전은 2003년에 출판).
- Whyche, K. F., & Rice, J. K. (1997). "Feminist therapy: From dialogue to tenets", In Judith Worell & Norine G. Johnson (Eds.), *Shaping the future of feminist psychology: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Washington DC: APA.

A study on a Model for Feminist Counselors Education

Yea-sook Kim

Mun-soon Ka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Choonhea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the current education for feminist counselors is and to sketch a model for the future feminist counselor education. To fulfill this purpose, the methods of the literature review, the analysis of the current education program, and the depth interview are used. In the literature review, four major components for the education for feminist counselors are researched; the goal, the content, the process, and the educator. The result is following; The feminist value, the embodiment of that value, and educating counseling skills should be the goal of the education; The content should include the history of feminist counseling, women's studies, counseling psychology, psychology of women, and self-reflection of counselors. In the process the equality between the teacher and the student should be pursued, the diversity and the experience of the student should be respected, the non-sexist language should be used, and the teacher should play the role of the mentor; The educator should play a role model, be positive about herself, empower the student, perceive the teaching as a cooperative process, and reveal herself as a part of education. By the result of the literature review, the current education program and the depth interview are analyzed. It is concluded that the current education for feminist counselors is not sufficient. Firstly, the areas of the content is not balanced. Secondly, the content is more emphasized than the process. Thirdly, the number of the educator is less than the need.

key words : *Feminist Counselors Education, educational goal, educational content, educational process, educator.*